

사설

목탁소리 지구촌 곳곳에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을 축하하며

부처님께서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한 나무 밑에서 이들을 머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적이 있다.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포교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세계화의 접점에 한국불교의 첫 해외 포교사는 승산 행원스님이었다. 어린 30년간 세계 각국에 한국불교 세계화의 목적이 울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대만·홍콩 멀리는 캐나다·미국·남미·아프리카·유럽·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장삼자락이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포교에 열중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 포교사들은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사회의 역할과 해외 동포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오고 있으나 한번도 이들을 위한 위로의 행사는 물론 찬사도 보낸 적이 없었다.

마침 '해외포교 30주년 기념 대법회'를 조계종 총무원과 수덕사 화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오는 20일 힐튼호텔에서 스님과 재가 포교사를 초청하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 기다림이 없었으니 늦었다는 감도 없지만 함포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의 길목에서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전망하는 시점에서 한국불교도 이제까지처럼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맞이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불교의 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의 불교가 이 지구상에 살아 남으려면 찾아다니는 불교로 급속히 바뀌어야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쇼카왕의 전도사상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어나 일본 사람들은 해외 이주를 하거나 유학을 하고 돌아와도 자기네 전통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전통 종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도 해외에 가면 거의 다른 종교에 돌입해 버린다.

타종교의 해외전진 선교사의 지원이 외국인의 선교도 목적이지만 동포의 선교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우리 종단 예산에서 해외포교비가 전무하니 그 흔한 불교계신문 한장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넉넉한 선교자금으로 교회를 갖고 선교에 전념하는 타종교의 흥내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문서 포교의 자료라도 제공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

이제 세계는 한마당이다. 현재 해외에서 포교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의 소재와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포교 자료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한국 전통 종교로서의 민족문화의 긍지를 잃고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더불어 종단차원의 자질을 갖춘 해외포교사 양성과 체계있는 포교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 스님의 장삼을 입고 '지식위명례'를 하는 '눈 푸른 외국승을 보면 한국불교는 이렇게 세계화되고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이외

열린마당

봉축기획단 상설

불교현대화 모색으로 획일화 우려 해소

한상린 <대인승기획 대표>

종교행사를 획일화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다만 종교의 상징성도 이제까지처럼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맞이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불교의 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의 불교가 이 지구상에 살아 남으려면 찾아다니는 불교로 급속히 바뀌어야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쇼카왕의 전도사상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개한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불교문화는 시장과 측면에서 매우 화려하고 정답이다. 그 화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현상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보여진 회장과 케릭터가 감각이나 품격에 있어 어느 것보다 비교우위를 차지한 것도 불교문화의 정수들이 시대를 분류

연등축제 전국행사로 발돋움 준비계기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지도법사>

이번 연등축제행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임과 동시에 민족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국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번 행사는 부처님이 오신 뜻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는 성과에도 국적불명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인들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등축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부산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사직실내 체육관에서 의례적인 행사와 함께 불교도시 부산이라는 낙인이 무색할 정도로 조촐히

각 종단 중지살리는 프로개발 선행돼야

이남재 <종단협 총무과장>

'개발음의 사회화' 주제를 가진 이번 봉축행사는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속에 불행되었다. 특히, 봉축행사의 백미인 서울의 연등축제는 명칭부터 시작해 그 내용까지 예년의 요식행사의 틀을 과감히 깬 축제로서 거듭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이외

종단 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방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행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범종단적인 참여와 지역적인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조계종단의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다. 범종단적인 행사를 많이 주관해 본 조계종의 노하우와 이를 벤치마

해주는 유물·유적으로 전락하면서 현실의 뒷면으로 내려앉은 지금 우리의 멋도 우리의 열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불자들이 고무되고 자긍심까지 얻었다면 이는 분명 잊혀진 기억들을 찾게된 것임에 틀림없다.

불교계 명절들은 부처님오신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문화적 색채를 담기에 넉넉하다고 본다. 성도절 출가절 열반절 등 의미를 지닌 각종 명절들을 생활문화와 예술에 접목시키는 이번 행사는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때 국민적 축제의 함의점이 도출될 것이다.

치워졌다. 서울에서의 요란한 축제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그래서 나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 뜻을 전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등축제의 기획이 필요하리라 본다.

향후 봉축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지방봉축행사다. 지방봉축위원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논의, 이해가 선행된 연등축제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적 불교문화축제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적어도 최대명절 부처님오신날만큼이라도 전국조직으로 해내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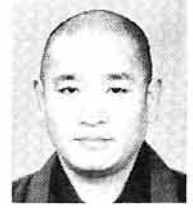
킹하여 발전시키려는 각 종단들의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의 축제로 거듭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경쟁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다.

각 종단의 중지를 살려 봉축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뜻깊은 봉축이 될 것이다. 차체에 조계종에서 봉축기획단을 상설화하여 각 종 불교명절도 여분하게 기린다는 소식이 있다. 더 큰 안목으로 봉축기획단은 범종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14일 초파일 봉축행사 평가와 시상식이 있었다. 금년 봉축행사는 연등축제는 이름으로 다양한 기획이 시도되었다. 특히 봉축행사를 전통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불자들은 봉축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계종은 각종 불교명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상설기구도 설립할 계획이다. 각종 봉축행사가 범국민적 제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현스님 <봉축기획단 실무국장>

봉축기획단의 상설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동안 봉축기획단은 부처님오신날을 3~4개월 앞두고 결성되곤 했다. 상설화 하자는 것은 봉축행사가 끝나면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먼저 봉축기획단의 상설화에 앞서 금년 봉축행사를 뒤돌아 보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봉축기획단의 몫이다. 모든 일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봉축기획단의 상설화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봉축기획단의 몫이다. 모든 일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봉축기획단의 상설화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불교명절마다 봉축행사 불자 자긍심 고취하자”

것이다. 한마디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스님 총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전대미문의 대성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있다고 본다. 여러가지 방도가 있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번 봉축행사가 남긴 중요한 교훈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봉축행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회장 케릭터를 디자인 개발은 불교에 대한 친근감, 관심 유발, 불자들의 자긍심 고양, 행사의 이미지 통일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예년의 제등행렬과 봉축법회를 통합한 연등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외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거리축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관광 명절로도 부상할 수 있게 했다.

다행히 종단에서는 봉축위원회를 조직, 2명 정도의 실무진을 두고 연중 봉축에 관한 연구 기획을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종단의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연중 봉축에 관해 연구 검토 할 수 있어 내년에 봉축기획단은 물론 각종 명절을 보다 낮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만평



돌아가시오!

목어

미국 등부에 살고있는 한 불자 가정에 교민이 생겼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옆에 나란히 살고있는 외사촌 형제들과 교회에 나가면 안되느냐고 매주 조르기 때문이다. B씨네는 독실한 불자 가정이다. 처가의 어른들은 불자였는데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하면서 아들 3형제의 종교에 맞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심각해졌다. 함께 공부하고 놀고 어울려 노는 사촌들이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면 B씨네 아이는 그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다. 어린 마음이지만 아빠·엄마가 집에 다니므로 때때로 승낙없이 교회에 나갈 수는 없었다. 부모님따라 절에도 가 봤지만.

어느 교민불자의 고민

만 어른들끼리 보는 법회가 아이에게 재미있을지 만무하다. 사촌들은 교회에 가자고 부르고, 바라보면 외사촌·외숙모들도 B씨 내외에게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그러느냐고 넌지시 권했다. 그럴때마다 B씨 내외는 난감해

진다. 생각같아서는 절에 어린이 법회나 한글학교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도 여의치 않으니 안쓰럽기만 하다. 고민끝에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를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불교와 구체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기독교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친정식구 모두 교회에 다니는데, 불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말쑥함에 그저 머리숙여지고 감사할 뿐이다.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을 기리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 돌아보면 해외포교는 종단보다 스

님들 개인의 원력봉사로 이어져 왔다. 험겨운 길을 개척해온 몇몇 스님들의 전법원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불교는 해외포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상톤의 B씨 가정의 이야기는 한국불교가 해외에서 선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제시한다. 교민 2~3세를 위한 전법이 화급하다. 파리미터 운동이 해외에서도 잘살함을 왜 몰랐던가. 언제까지 한국에서 전법사가 나갈 수는 없다. 이제 교민 2~3세 포교사가 배출돼 교민은 물론 각국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으로 현지인들을 교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님의 말씀

사실여부 살펴야 친구를 닮은 닮은 인해 버려서는 안된다. 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비나아움>

성남지장사 불교요래원 원장 유환 TEL. (02) 536-3349

생활속의 불교

바다 밑의 진주를 캐고 싶거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일단 바른 것, 당연한 것으로 안다. 굳이 따지고 든다면 이유가 분명하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그러하리라고 믿는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본보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그래서 시작된다.

나를 기준 삼아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분별하는 한 결론은 언제나 '네 탓'이 된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된다. 긴장과 갈등의 책임도 뭉툭 상대의 몫이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완강하다. 깨달은 이 말고는 좀체로 '네 탓'을 수용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스스로도 혼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조차 사람들

은 '타할 거리'를 찾는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뭔가에 흠뻑 젖어 뒀어 죄책감'이라는 식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바르고 당연한 기준 위에서 있는데 '어쩌다, 뭐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는 변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뚝바로 되돌아 보라'고 하신다. 일체의 긴장과 갈등, 고통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므로 그 해답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하신다. '내 탓'을 강조하심이다.

나, 나의 것에 집착하는 의식(아상)은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본 틀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자신을 되돌아 보려면 「삼독심→욕망→아상→을



거슬러 그 뿌리를 캐고 들어야 한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했는가, 이런 생각,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원인으로 좇아 들어가야 한다. 마음의 깊숙한 중심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이러나 수행이란 오직 그것, 마음의 중심 자리를 향해 안으로 깊숙히 뛰어 드는 일 그 한 가지일 뿐이다.

바다 밑의 진주를 캐려면 먼저 잠수를 해야 한다. 물에 뛰어들어야 하고 바닥까지 깊숙히 들어가야만 한다. 물에 뜬 채로 아무리 바깥을 두리번 거려도 거기서는 진주를 채취할 수 없다.

오로지 물 속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비로소 진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뚝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수직으로 잠수해야만 한다. 비스듬히 뛰어들어

서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다. 단 한 번의 다이빙으로 바닥까지 내려가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한다. 누구나 뛰어들이지만 하던 진주를 채취할 자격이 있다.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했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 자리로 뛰어들라. 똑바로 뛰어들라.

뛰어들은 불성을 믿고 일체를 맡겨 놓는 것이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깊고 깊은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믿고 놓는 것이다. 욕망·아상을 넘어서는 길이다.

놓음이란 일거수 일투족에서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여의지(잊지)않으며, 언제나 그 중심의 함인 줄을 믿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 자리-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갈 때 나의 언행은 그대로 바로고 당연한 언행이 되는 것이다.

협찬: 장규봉